

#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本質에 관한 一考察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있어서의 疎外現象과 關聯하여—

李 相 禧

## <目 次>

- |                      |                             |
|----------------------|-----------------------------|
| I. 머리 말              | V.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特性            |
| II. 人間 커뮤니케이션과 社會    | VI.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있어서의 疎外現象 |
| III. 人間 커뮤니케이션과 生産活動 | VII. 結으로                    |
| IV. 人間 커뮤니케이션과 相互傳達  |                             |

## I. 머리 말

매스·커뮤니케이션 科學에 있어서 하나의 基本的인 研究課題는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앞서서 人間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이 어떤 性質의 것이며 人間에게 또는 人間社會에 어떠한 뜻을 갖는 것인가—— 말하자면 그 本質에 관한 認識이 하나의 重要的 研究焦點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本質을 如何히 理解하고 把握하는가에 따라서 人間이 긴 歷史를 두고 發展시켜온 커뮤니케이션 制度, 커뮤니케이션 手段, 커뮤니케이션 現象 등에 대해서 評價하는 基準이 달라지겠기 때문이다. 오늘날 人間에게 重要的 뜻을 갖는 매스·커뮤니케이션 現象도 人間이 오래동안 發展시켜온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한 段階에 不過하며 또한 全社會的 커뮤니케이션의 總過程 중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人間社會가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複合體는 그 基底에 對人的인 “퍼어스널·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을 깔면서 그 위에 各種 制度的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여러가지 行政的인 機構나 軍隊, 學校 또는 宗教團體, 政黨, 社會團體 등의 組織體 속을 流通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며 이 制度的 커뮤니케이션<sup>(1)</sup>위에 社會全體 表面을 뒤덮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물론 制度的 커뮤니케이션이나 매스·커뮤니케이션 속에 퍼어스널·커뮤니케이션이 作用하고 있으며, 이것이 各段階 커뮤니케이션의 流通過程 속에서 重要的 機能을 擔當하고 있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影響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퍼어스널·커뮤니케이션의 影響力이 얼마나 重要하게 作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E. Katz 나 P.F. Lazarsfeld 그리고 B. Berelson 등 여러 研究者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sup>(2)</sup>. 問題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1) 이와 비슷한 概念으로 “intermediate communication” “special interest communication” 등의 用語가 있다.

(2) Berelson, Lazarsfeld, Mcphee, “Voting”, Lazarsfeld, Berelson, *Peoples' Choice*, E. Katz, *The Two Step Flow of Communication* 등.

全社會的 커뮤니케이션 總過程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과 또한 이것이 비록 오늘날 重要的 커뮤니케이션의 한 形態라하더라도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基本的이고 原初的 形態인 퍼어스널·커뮤니케이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點을 理解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現代社會에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던지고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 現象을 理解하기 위해서, 또는 그 問題點이 지니고있는 가장 基本的인 點, 核心에 到達하기 위해서 人間 커뮤니케이션이 元來 갖고있는 本質에 生覺이 미치게되는 것이다.

## II. 人間 커뮤니케이션과 社會

人間은 社會를 벗어나서 存在할 수 없으며 社會는 人間과 人間과의 接觸없이 成立될 수 없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없이 社會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社會없이 人間은 生存할 수 없다는 말이다. 社會學者 C.H. Cooley는 人間과 社會와의 不可分性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있다.

『등떨어진 個人이라는 것은 經驗에 견딜수 없는 하나의 抽象에 지나지 않으며 同時に 社會가 諸個人으로부터 遊離된 어떠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그것 亦是 하나의 抽象에 지나지 않는다. 現實인 것은 人間生活이며 그것은 個別的인 側面과 함께 社會的側面 即 一般的側面의 兩者에 있어서 考察되어야만 한다<sup>(3)</sup>』. Cooley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現實社會와 아무런 紐帶를 갖지 않는 完全히 등떨어진 人間이라는 것은 想像할 수가 없으며 정말 하나의 抽象物에 지나지 않는다. 具體的인 人間이라는 것은 人間社會 속에서 서로 影響을 주고 받으며 相互聯關되어 있는 個人인 것이다. 孤島에 갇힌 “로빈슨·크루소”라 할지라도 그전의 人間社會에서 그가 다른 人間과의 相互接觸過程에서 習得한 生活樣式과 方法으로써 生存이 可能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人間은 다른 人間과의 相互接觸없이 生存할 수 없으며 社會는 人間の 相互交涉으로써 成立된다.

그런데 여기서 重要的 것은 人間과 人間과의 相互接觸 또는 相互交涉이라는 過程은 바로 우리가 問題로 삼고있는 人間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點이다. 人間과 人間을 聯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過程이며 이 커뮤니케이션 過程이야말로 人間을 現實的인 社會過程 속에 實體化시키는 구실을 한다. 生物的 個體로서의 人間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비로소 社會的 存在로 될수있으며 諸個人이 서로 自己를 認識하고 他人을 아는 場(場)으로서 社會가 設定되는 것이다. CBS 放送會社에서 調査를 담당하고 있는 社會心理學者 G.D. Wiebe는 重要的 發言을 하고있다. 『커뮤니케이션은 個人이 他人에게 影響을 주며 또한 他人으로부터 影響을 받는 手段이기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社會過程에 있어서 現實的 媒介者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서 비로소 相互作用은 可能해진다. 人間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自己 스스로를 社會的 存在로 만들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生을 維持한다. 人間은 커뮤니케이션 없이 相互結合할수 없으며 協業을 할 수도 없고 또는 自然環境에 대한 支配를 계속해나갈 수도없다. 發明이나 發見은 거의 恒常 情報의 蓄積과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繼承되는 概念의 開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單純한 發明, 가장 初步的인 思考過程일지라도 커뮤니케이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sup>(4)</sup>.』 이와

(3) C.H. Cooley,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pp. 1~2.

같은發言은 人間의 現實的인 社會過程을 生覺하는데 있어서 人間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가장 基本的인 要素의 하나이며,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人間社會가 成立維持될 수 없다는 것을 端的으로 表示하고 있다. 또한 人間과 人間이 서로 相對를 알아보고 相互交涉을 갖는 것은 基本的으로는 本能에 가까운 慾求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이 人間相互間의 交涉本能에 뿌리를 박은 人間 커뮤니케이션은 單純한 本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極히 社會的인 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C.Cherry는 『커뮤니케이션은 本質적으로 社會的事象(social affair)이다<sup>(4)</sup>.』라고 하고 계속해서 人間은 그들의 社會生活을 可能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體系를 發展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人間은 그들이 갖고있는 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의해서만 社會生活을 營爲할 수 있으며 두말할 것 없이 人間의 커뮤니케이션活動이라는 것은 複數의 人間關係를 規定짓는 것이기 때문에 分明히 社會的인 行爲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름든 C.H. Cooley가 『人間의 社會關係는 記號(symbol)의 交換 即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成立하고 發展한다』는 커뮤니케이션論을 展開한 以來 人間社會와 人間 커뮤니케이션活動은 不可分の 것이라는 點이 認定되어온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W. Schramm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아마 社會에 있어서 基本的인 過程일 것이다. 實際 物理的 接觸 水準 以上の 水準에서 갖는 相互交涉으로해서 우리들은 “社會”라는 이름의 諸關係를 가질수가 있다. 萬若 비유를 쓰는 것이 許容된다면 커뮤니케이션과 社會와의 關係는 血液이나 神經系統과 人體와의 關係에 가까운 것이리라<sup>(5)</sup>.』

### Ⅲ. 人間 커뮤니케이션과 生産活動

한편, 人間——自然人으로서의 人間이 生命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必然적으로 自然과의 接觸이 있어야만한다. 人間은 自然에 作用하여 그것을 利用함으로써 生命을 維持할 수 있다. 이 自然과의 接觸過程에서 人間은 協力하며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무리를 이루고 소리를 지르며, 돌이나 몽둥이를 던져서 큰 짐승을 몰아부치고, 낭떨어지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계략<sup>(7)</sup>』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며, 또는 손에 넣은 獲得物을 處理하기 위해서 同僚들을 많이 모으고 共同의 作業을 할 必要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人間은 다른 人間과 協力해서 自然과 싸우며 그렇게 함으로써 生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即 有機的인 自然存在로서의 人間이 現實적으로 生을 營爲한다는 것은 人間外部에 있는 自然과 必然的인 接觸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은 自然과 그 自身이 自然의 一部인 人間과의 사이에 相互規定關係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人間이 生存하기 위해서 다른 人間과 힘을 모아 일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은 相互扶助나 共同的인 協力の 機會를 增加시켰다. 人間이 다른 人間과 協力해서 自然에 作用한다는 것은 生産活動을 意味한다. 이 共同的인 生産活動 속에 우리들은 集團成員 相互間에 이루어진 相互交涉을 찾을 수 있

(4) E.L. Hartley and R.E. Hartley, *Fundamentals of Social psychology*, p. 16. 이 冊 속의 한章, 「커뮤니케이션」은 G.D. Wiebe가 答當했다.

(5) C. Cherry, *On Human Communication*, p. 3.

(6) W. Schramm, "The Communication System of National State," 培風館, "社會的 커뮤니케이션," p. 297.

(7) 角川書店, "世界文化史大系" (生活技術의 發生).

으며 그 속에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原初의 形態를 發見할 수 있다. 앞에서 引用한 G.D. Weibe의 말을 한번 더 想起하자. 『人間은 커뮤니케이션 없이 相互結合할 수 없으며 協業을 할 수도 없고 또는 自然環境에 대한 支配를 계속해나갈 수도 없다.』 이와같은 狀況 속에 우리들은 生産活動과 人間 커뮤니케이션과의 密接한 關係를 認定할 수 있다. 共同的인 生産活動이야말로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前提條件이었다고 할수있다. 그리고 또한 이 生産活動이야말로 人間社會 成立의 契機라고 볼수있다. K.W. Deutsch는 生産活動과 人間社會와의 關係를 이렇게 말하고있다. 『社會라는 것은 分業과 生産 그리고 物資의 分配와 서-비스를 通해서 相互依存을 이룩하는 個人的集團을 意味한다. “社會”는 共同으로 일하는 것을 배운 人間の 集團을 뜻한다. (8)』 人間이라는 것은, 그리고 人間社會라는 것은 共同으로 일하며(work together) 相互依存(interdependent)을 이룩하는 存在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自然存在로서의 人間은 生을 營爲하기 위해서 外界의 自然과 必然的으로 接觸을 가져야만하며 이 自然과의 接觸 即 生産活動을 하는 過程에서 人間은 相互扶助하고 共同的인 協業을 하는 것이다. 이 共同的인 生産活動이야말로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前提條件이며 人間 커뮤니케이션을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必要 不可缺한 要素이다.

#### IV. 人間 커뮤니케이션 과 相互傳達

다음, 人間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重要的 側面的 하나를 相互傳達(inter communication)을 하는 性質이다. 具體的으로 이 問題에 들어가기 前에 우선 人間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概念整理가 必要하다. C. Cherry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概念이 수많은 混亂을 가져올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社會學, 言語學, 心理學, 經濟學, 그리고 神經系統의 心理學, 記號(sign)의 理論, 또한 “커뮤니케이션工學”(communication engineering)등에서 問題가 될 것이라고 하고있다. (9) Cherry가 말하는 바와같이 커뮤니케이션의 概念에 대해서는 研究分野에 따라서 또는 研究者의 主觀에 따라서 이 問題를 生覺하는 研究者의 數만큼 있을지 모르나, 이 問題를 整理하고 있기로는 獨逸의 G. Maletzke가 있다. 그는 主要한 研究者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概念을 羅列 하고있는데, (10) 이 問題를 生覺하는 基礎資料로서 紹介하기로 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여기서는 그것을 通해서 人間關係가 成立되며 發達하는 메카니즘을 뜻한다. —精神의 모든 심볼(symbol) 및 그것들을 空間的으로 運搬하고 時間的으로 保存하는 手段이다. (11)』

『……커뮤니케이션이란 個人(通信者)이 다른 個人(受信者)의 行動을 變容하기 위하여 刺戟(普通으로는 言語的 symbol)을 보내는 過程이다. (12)』

『두 사람의 人間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活動은 兩者가 同一한 記號(sign)를 同一하게 理解하는

(8) K.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p. 61.

(9) C. Cherry, *ibid.*, p. 2

(10) G. Maletzke, *Psychologie der Massen-Kommunikation*, NHK 放送學研究室 譯, pp. 29-30.

(11) C.H. Cooley, *Social Organization*, p. 61.

(12) C.I. Hovland, *Social Communication*, p. 182.

境遇에 完結한다.<sup>(13)</sup>』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의 出處(source)가, 信號(signal)를, 通路(channel)를 通해서 目的으로 하는 受信者에게 通信하는 경우에 생긴다<sup>(14)</sup>.』

『어떤 體系, 말하자면 出處(source)가, 많은 可能性 안에서, 兩者를 잇는 通路(channel)로 運반할 수 있는 signal을 選擇하는 것으로서, 다른體系 即 目的(destination) 혹은 受信者(receiver)의 狀態 내지는 行爲에 영향을 줄 때는 어떠한 때이든 우리들은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 人間의 커뮤니케이션體系를 取扱할 때는 우리들은 대개 signal의 모임을 메시지(message)라고 부르고 있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그럴 必要는 없지마는 흔히 言語(language) 메시지일 경우가 많다<sup>(15)</sup>.』

『커뮤니케이션은 羅典語의 communis 即 英語의 common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들은 커뮤니케이션할 때 누군가와 함께 “共通의 것(commonness)”을 세울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情報, 思想, 또는 態度를 共有하려고 하고 있다<sup>(16)</sup>.』

『커뮤니케이션이란 個人과 個人과의 사이에서 意味를 傳하는 過程이다<sup>(17)</sup>.』

『커뮤니케이션이라는 概念은 사람들이 서로 影響을 미치는 모든 過程을 包含할 것이다<sup>(18)</sup>.』  
 좀 지루한 引用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研究者에 따라서 다같은 人間 커뮤니케이션을 두고 相當히 다른 角度에서 또는 相當히 다른 點에 accent를 두고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概念 중에서 注目할만한 要素中の 하나는 人間과 人間과의 사이에서 어떤 sign이든 symbol이든 간에 뜻을 주고받는 相關關係가 이루어진다는 點이다. 말하자면 한 人間이 뜻을 傳達함으로써 自己의 生覺이나 立場을 相對方에게 單純히 傳達(通信)만하는 것이 아니라 相對方의 뜻도 傳達받아서(受信)그의 生覺이나 立場을 理解하는 過程이 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물론 食糧으로 하기 위한 動物이나 敵에 대해서 一方的으로 攻擊의 뜻을 傳한다든가 하는 相對方의 뜻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는 傳達方式도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派生的인 또는 奇型的인 것이지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元來 性質은 아니다. W. Schramm이 말하는 바와같이 “共通의 것”(commonness)말하자면 共有世界, 理解를 가질려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本質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の 少壯研究者 藤竹 曉도 이렇게 말하고있다. 『最底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單位가 이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體系는 相互間에 두 사람의 單位가 發信者와 受信者의 役割을 交換하면서 서로의 環境의 共有部分을 增大해나가는 過程을 內包하고 있다.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過程은 거기에 參加하는 커뮤니케이션 單位 사이에 存在하는 共有世界를 確認하고 擴大해나가는 試圖에 不過하다<sup>(19)</sup>.』

(13) H.D. Lasswell, *Describing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p. 38.

(14) G.A. Miller, *Psycholinguistics*, p. 701.

(15) C.E. Osgood et al, *The Measurement of Meaning*, p. 272.

(16) W. Schramm, *How Communication works*, p. 3.

(17) C.R. Wright, *Mass Communication*, p. 11.

(18) J. Ruesch and G. Bateson, *Communication—The social matrix of psychiatry*, p. 6.

(19) 藤竹 曉, “現代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 理論,” p. 10.

말하자면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正常的인 形態는 커뮤니케이션 當事者 間에 이루어지는 相互傳達(inter communication)인 것이며 一方的인 傳達는 아니다. C.H. Cooley가 말하는 바와같이 人間關係를 成立·發展시키는 것이며 J. Ruesch 와 G. Bateson 이 이야기하는 바와같이 人間相互間에 影響을 미치는 過程인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人間과 다른 人間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相互傳達에 앞서서 한 個人內部的 커뮤니케이션을 生覺할 수 있다. C.E. Osgood 와 T.A. Sebeok 는 人間을 커뮤니케이션의 한 單位로 生覺했다. 이 單位로서의 人間은 message 를 受信하고 發信할 수 있다. 이것은 人間이 獨立自足物인 커뮤니케이션의 體系라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커뮤니케이션 單位로서의 人間은 自己個人 內部的 커뮤니케이션(intrapersonal communication) 即 思考가 可能한 存在로 되는 것이다<sup>(20)</sup>. 이와같이 通信과 發信을 自足的으로 할수 있는 人間이 다른 個人과의 사이에서 形成하는 이른바 個人的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自足的인 커뮤니케이션의 各 單位 사이에서 通信과 受信을 相互間에 주고받는 過程에 不遇한 것이다<sup>(21)</sup>. 다시 말해서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基本的이고 重要的 存在形態는 人間과 人間 사이의 相互傳達이며 또한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哲學은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 그리고 『人間과 事物과의 關係를 合理的인 것으로 이끌고 相互理解와 合意(consensus)를 가져오며 事物의 客觀的인 把握을 가져다 주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sup>(22)</sup>.』

## V.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特性

人間 커뮤니케이션 研究에 있어서 하나의 重要的 課題는 커뮤니케이션 當事者들이 커뮤니케이션 內容을 가운데 두고 어떠한 對應關係에 놓여있는가, 그리고 그 結果로서 커뮤니케이션 內容을 如何히 共有하고 있는가——, 或은 內容에 대해서 누가 主導權을 쥐고 있는가——하는 點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 Maletzke는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數 많은 種類 中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詳細히 規定하기 위해 重要的 뜻을 갖는 對概念 單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1) 直接的 및 間接的 커뮤니케이션, (2) 相互的 및 一方的 커뮤니케이션, (3) 私的 및 公的 커뮤니케이션의 세쌍의 對概念으로 나누고 있다<sup>(23)</sup>. 그는 첫째번 對概念을 說明하기를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直接的으로(direkt) 即 中間物이 없고 無媒介的으로 face to face 로 얼굴을 맞대고 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間接的(indirekt)으로 即 媒介的으로 커뮤니케이션 當事者間에 空間的 또는 時間的 距離 或은 時空의 距離를 中繼하는 形式으로 흐른다.』라고 하고, 둘째 번 對概念은 이렇게 說明한다. 『커뮤니케이션은 恒常 相互的(gegenseitig)이거나 一方的(einseitig)이거나 어느 한가지 形式으로 흐른다. 相互的이라는 것은 가령 個人的인 會話의 경우와 같이 이야기 相對가 恒常發信者로서의 役割과 受信者로서의 役割을 交換하고 있는 경우

(20) Osgood, C.E. and T.A. Sebeok (ed.), *Psycholinguistics: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Problems*, pp. 1~7., 藤竹, *ibid.*, p. 207.

(21) 日本의 社會學者 高橋 徹는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三段階 理論이라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가 intrapersonal communication 이며, 다음이 interpersonal communication, 그리고 셋째가 mass communication 이다.

(22) 清水幾太郎, “社會心理學”, p. 113.

이다. 그리고 一方的이라는 것은 한 쪽의 相對는 언제나 發信者이며 다른 한 쪽의 相對方은 언제나 受信者라는 式으로 役割交換이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Maletzke는 첫째번의 “直接的·間接的” 對概念, 둘째번의 “相互的·一方的” 對概念을 다음과 같은 네개의 쌍으로 再分類한다.

- (1) 相互的 直接的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하는 會話같은 경우이다.
- (2) 相互的 間接的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電話나 電信의 경우에서 볼수있다.
- (3) 一方的 直接的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講演의 경우에서 볼수 있다<sup>(24)</sup>.
- (4) 一方的 間接的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印刷物(便紙·電報·新聞·雜誌·圖書), 테코오드, 映畫,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現象이다.

상당히 길게 Maletzke의 커뮤니케이션形式分類를 紹介했으나 여기서 우리가 注目하는 것은 이른바,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人間커뮤니케이션 形式은 恒常 一方的이며 間接的이라는 點이다. 그리고 어디서나 이야기되고있는 바와같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은 不特定多數의 人間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公的 커뮤니케이션”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지니는 이와같은 特性, 即 一方的이고 間接的이며 또한 公的인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特性은 많은 重要한 問題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

이와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갖는 外形的 特性(本質的인 問題는 除外된다)은 主로는 커뮤니케이션手段인 technology가 介在되기 때문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過程에는 必然的으로 高度의 機械技術시스템이 介在되지마는 이와같은 事實은 커뮤니케이션 當事間의 役割交換을 不可能하게하고있다.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基本的인 形態가, 그리고 그 本質的인 性格이 서로의 뜻을 相互傳達하고 共存의 世界와 理解를 擴大하는데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人間 커뮤니케이션 technology가 매스·미디어 段階에 이르렀으므로해서 人間 커뮤니케이션 形式은 一方的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와 같은 現象을 한 研究者는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 過程의 特質은 다음 諸點에서 求할 수 있다. 첫째, 通信者와 受信者의 專門分化, 둘째로, 이러한 結果 通信者는 message의 生産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集團이며 受信者는 이들 message를 받아드리고 消費하는 不特定多數의 人間이다. 이와같이해서 셋째로, 通信者에서 受信者에로 message는 一方通行的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와같은 點에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特質을 求할 수 있다<sup>(25)</sup>. 매스·커뮤니케이션의 一方通行的 性格을 Cherry는 “cooperative”(協力的)와 “non-cooperative”(非協力的)라고 表現하고<sup>(26)</sup>, Lasswell은 “one way”(一方交通)와 “two way”(雙方交通)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Cantril과 Allport는 “circular”(循環的)와 “lineal”(直線的)이라는 말로 區分하고있다<sup>(28)</sup>.

(23) G. Maletzke, *ibid.*, pp. 38~41.

(24) Audience의 질문을 考慮해서 相互的이라고 生覺하는 것은 여기서는 無視될 수 있을 것이다.

(25) 藤竹, *ibid.*, p. 11.

(26) C. Cherry, *ibid.*, p. 16

(27) H.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W. Schramm (ed.), *Mass Communication*, p. 121

(28) H. Cantril and G.W. Allport, *The Psychology of Radio*, p. 265.

그러나 문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이와같은 形式——, 一方的이며 間接的이고 또는 公的이라는 形式的인 面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問題點을 指摘한 바와같이 커뮤니케이션 手段을 如何히 運用하고 또한 거기에서 어떠한 內容을 담는가, 말하자면 매스·커뮤니케이션 過程에 있어서 누가 主導權을 쥐고 있는가 하는 點에 問題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 속에 人間들은 어떠한 對應關係에 놓여있는가, 即 커뮤니케이션 手段과 커뮤니케이션 關係 속에 바루 問題點이 깃들여있는 것이다.

## Ⅶ.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있어서의 疎外現象

人間 커뮤니케이션은 人間社會 成立의 基本的인 要素였지만 이것은 또한 社會의 發展에 影響을 미치고, 社會의 發展은 다시 커뮤니케이션 手段이나 커뮤니케이션 過程에 影響을 미친다. 成員相互 間의 合意와 理解를 위해서는 對人的 커뮤니케이션만으로 足했던 同質的인 社會로부터 異質的인 大衆的 社會로 移行함에 따라서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手段도 發達하고 그 能力도 增大된다. 人間の 커뮤니케이션 手段은 단순한 몸짓(gesture)이나 외마디소리에서 言語로 發展하고, 나무나 바위에 그리던 極히 單純한 表示로부터 文字를 發明하였으며, 物體를 두들기거나 蠟燭 信號로부터 電信·電話나 現代人間이 갖고있는 놀라운 通信手段으로 發展되어 왔다. 이와같이 하여 社會의 發展과 함께 人間커뮤니케이션의 “原初的過程”에서 “第二次的技術”의 發達이 있게 되었다. 人間社會의 進展과 함께 文化도 發展하고 그 속에서 人間 커뮤니케이션 手段 또한 發展한 것이다. 人間社會는 『動物集團이 單純한 生物·社會的體系(bio-social system)로서 理解되는데 比해서, 社會·文化的 體系(socio-cultural system)로서 把握되어야만 한다. (Davis Kingsley, : Human Society) 社會文化的인 存在로서의 人間이 아무리 文化를 蓄積하고 發展시킬 수 있다고 해도 필경 그것은 한 사람의 個人이 能히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必然的으로 集團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文化는 (커뮤니케이션 手段을 包含한) 한 사람의 成員에 보다는 오히려 全體로서의 集團에 屬하는 것이라고 해야만한다<sup>(29)</sup>.』

人間の 文化는 그것 自體가 바로 人間 커뮤니케이션 能力의 結果이지만 커뮤니케이션 手段을 包含한 科學 技術 역시 그러한 것이다.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technology 역시 全人類文化의 所産이며 結果이기 때문에 어느 特殊集團이나 特定個人에게 所屬될 수는 없는 性質의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手段도 當然히 “全體로서의 集團에 屬해야만”한다. 科學技術은 그 自體의 論理로 움직이는 것이며 그 속에 어떤 價値觀을 包含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原子力의 開發에서 좋은 例를 볼수 있는 바와 같이 科學技術이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어떻게 使用하는가에 따라서 價値가 賦與된다. 『現代에 있어서 重大한 問題는 科學技術의 進歩 및 그 所産과 人間과의 關係이다. 가령 物理學, 數學, 化學을 基礎로해서 高度로 發達한 生産技術 등 人間の 知慧가 만들어낸 것들이 進歩와 前進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人間에게 惡으로서 威脅으로서 登場하고있다는 點이 問題다. 이와같은 科學技術은 그것을 만들어 낸 人間の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一部の 人間에 의해서 掌握되고 操從되는 것으로하여 大部分의 人間은 그 恐怖 속에

(29) 生田正輝,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諸問題,” p. 12.



달려들어간다는 狀況<sup>(30)</sup>』이 또한 問題인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을 可能케하는 機械技術이 一般民衆으로부터 分離되어 特定個人이나 特定集團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事實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이 形式上으로 一方通行일 뿐 아니라 本質的으로는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으로부터의 人間疎外를 뜻하는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technology 는 一部特定人의 손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企業的 手段으로 化한다. 뿐만아니라 이들 特定人들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利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階級支配를 維持하기 위해서<sup>(31)</sup>』使用한다고 한다. 一般民衆은 매스·커뮤니케이션 關係에 있어서는 一方的으로 주워진 內容을 『자느나 안자느나의 選擇의 餘地 밖에 없는 受動的인 消費者<sup>(32)</sup>』로 轉落하고 만다. 그들은 文字 그대로 “captive audience”(捕虜가된 民衆)에 不遇하며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있어서 아무런 主導權도 갖고있지 못하다. 人間이 만든 機械技術에 의해서 可能하게된 매스·커뮤니케이션, 이 巨大한 괴물(bogey)이 無力하고 의로운 一般民衆(lonely crowd)앞에 두 팔을 쭉 펴며 버티고 서있다. 人間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人間 以上の 權威를 가지고 登場하고 있는 이 現實속에 人間疎外 現象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恒常 送信者(communicator)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흐르며 그 內容 역시 送信者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定해진다. 커뮤니케이션 內容에 대한 取捨選擇의 基準은 매스·미디어를 쥐고있는 사람이 決定하는 것이다. 一般民衆은 이 過程에서 疎外된다. 投稿나 公開放送 프로그램 따위에 “參與”하는 것은 定해진 基準에 달려드러가는것 外的 아무 것도 아니다.

한편 매스·커뮤니케이션 過程에 있어서의 送信者들은 어떠한가. Lasswell은 送信者(communicator)의 內部構造를 指摘한 바 있었다. 그는 controllers(支配者), manipulators(經營者) 그리고 handlers(實務者)의 세 概念을 使用하고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communicator)을 經營者(支配者)와 實務者로 分類한다. 첫째 集團은 典型的으로 內容을 變更시키는 集團이며, 둘째 集團은 그러질 못한다<sup>(33)</sup>.』 이와같이 內容製作에 決定權을 갖지 못한 實務者(handler)들은 다만 controller 나 manipulator 에 의해서 定해진 線에 따라 內容을 製作한다.

實務者들이 가지고있는 價値觀과 커뮤니케이션 內容의 基準과는 直接的인 聯關性으로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때로 그들 自身이 製作한 內容에 대해서 매우 自嘲的이다. 그들은 經營者들의 基準에 따라 內容을 製作하고 製作한 다음에는 그 內容을 自己로부터 分離시켜 經營者에 넘기고 만다. 具體的으로는 經營者로부터 指示된 營業部로 넘기고 만다. 그래서 送信者 內部에 있는 實務者들도 매스·커뮤니케이션 內容으로부터의 疎外와 매스·커뮤니케이션 關係에 있어서의 疎外現象 속에 빠지고 만다. 말하자면 一般民衆들 뿐만 아니라, 매스·커뮤니케이션에 直接 從事하고있는 實務者들 역시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있어서 主導權을 쥐고있지는 못하며 本質的으로는 그들 또한 疎外되어있는 것이다. Macdonald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大衆文化를 제작하는) 精神勞動者들은 工業勞動者들이 그들의 手工勞動으로 부

(30) 有斐閣, 講座 現代社會學 VI, p. 5.

(31) D. Macdonald “A Theory of Mass Culture” in B. Rosenberg (ed.), *Mass Culture*, p. 60.

(32) D. Macdonald, *ibid.*, p. 60.

(33) M.D. Lasswell, *ibid.*, p. 122.

터 疎外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精神勞動으로부터 疎外되어 있다<sup>(34)</sup>』

## VII. 結으로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哲學은 人間 相互間의 共有世界의 增大와 相互理解, 合意를 가져오는데 있었다.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手段은 目的을 이룩하기 위한 手段 그것에 不遇하다. 手段 以上の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手段에 그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手段이 發達하면 커뮤니케이션 能力<sup>(35)</sup>도 增大된다. 커뮤니케이션 能力의 增大는 人間社會에 더욱 많은 共有世界와 相互理解를 가져와야할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手段이 發達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生産物이 많이 나돌면 나돌수록 人間들은 커뮤니케이션 活動에서 疎外(外在化)된다는 現象 속에 하나의 基本的인 問題點이 存在하는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갖는 外形의 特性——, 一方的 傳達이라든가 間接的 또는 公的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特性은 主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을 可能케하고 있는 technology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여러가지 問題點 특히 그것이 갖는 體制的 性格<sup>(36)</sup>이라든가, 또는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있어서의 人間疎外 現象이라든가 하는 것이 바로 technology로해서 緣由된다고 生覺하는 論理에는 虛點이 있다. 그것은 手段에 不遇한 technology가 元來 人間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本質이나 存在理由에 어긋나게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 technology 自體에 어떤 矛盾이 깃들어있다고 斷定하는 것은 表面現象에 注目한 나머지 本質的인 面을 보지 못한 結果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갖는 問題點을 오로지 technology에 歸着시키는 論理는 人間을 無視하는 “테크노로지 決定論”(Technological determinism)에 빠지는 結果가 된다.

아름다운 全人類文化의 所産인 매스·커뮤니케이션 테크노로지가 社會의 一部特定人이나 特定集團에 所屬되고 掌握되어 있음으로써 現代社會에는 廣範圍하게 “디스·커뮤니케이션”(discommunication)現象이 判연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現代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갖는 問題點은 매스·커뮤니케이션 手段의 存在形態와 매스·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있어서의 送信者와 受信者와의 對應關係 속에 있다는 點을 指摘하는 것이다.

(34) D. Macdonald, *ibid.*, p. 65.

(35) C.H. Cooley는 커뮤니케이션 能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 (1) 表現力 即 그것이 운반 할 수 있는 思想이나 感情의 範圍,
- (2) 記錄의 耐久性, 即 時間의 克服,
- (3) 速度, 即 空間의 克服, 그리고
- (4) 傳播力, 即 모든 사람에의 接近의 네 要素를 들고있다.

(36) UNESCO: *It's Purpose and its philosophy*, '46에서 Julian Huxley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 手段은 國境을 넘어서 情報를 넓힐 可能性을 가져오기는 하지마는, 이 可能性은 때때로 實現되지 못하고 檢閲制나 新聞 라디오의 官僚統制, 民衆의 마음 속에 心理的 障壁을 쌓는 것으로해서 때때로 嚴重하게 封殺되고만다. 매스·커뮤니케이션 手段은 國家와 國家와의 通信이 全然 制限되지 않고 各國民이 서로 이야기 할수있는 史上 最初의 媒介體이다. 分明히 그러기는 하지마는, 그러면서도 이들 미디어를 통해서 諸國民이 이야기하는 內容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點, 그들이 듣는 內容이 人爲的 障壁에 의해서 制限되기도하고 또한 그 영향이 事前의 宣傳으로써 歪曲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